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복음으로 여는 스바나-

스바나 3:14-20, 빌립서 1:3-11

정운돈 목사님

스바나서의 유명한 구절이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다. 이것으로 지은 찬양도 있다. 그런데 스바나서를 읽어보면 당황하게 된다. 처음부터 나오는 말이 '멸절하리라' 하는 것이다. 왜 이러시는가, 이것이 의로운 하나님하신가 하는 생각이 들게 된다. 왜 그렇게 되었는데, 과정과 배경을 이해해야 한다. 성경을 읽고 의문과 오해만 생기면 안 되지 않겠는가? 구약의 말씀의 영적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면 실수하게 된다. 오늘은 스바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취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으려고 한다.

서론 : 스바나서의 배경

(1) 스바나는 이름은 '여호와께서 숨기신 자, 지키시는 자'라는 뜻이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숨겨두셨다. 하나님의 비밀이다. 애굽에 요셉을 숨겨두시고 지키시다가 가장 중요한 때 사용하신 것이다. 여러분이 현장에서 남은 자, 숨겨진 자,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자가 되시기 바란다. 이들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지금은 노예, 포로가 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표가 임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일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하나님은 우리를 숨겨두셨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게, 가정과 직장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를 쓰실 것이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숨겨둔 우리를 하나님은 직접 천사를 보내서 지키신다. 그래서 환경 조건은 문제가 안 된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에게 관심이 있다. 무슨 말인가? 주변의 사람들 때문에 시험에 든다. 나라의 일 때문에 시험에 빠진다.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key다. 이것이 오늘의 설교다. 여기서 끝내고 싶지만 그럴 수는 없고 (웃음)

(2) 스바나는 히스기야왕의 후손이고 왕족이었다. 4대손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히스기야 왕 후에 므낫세, 그 후에 암몬, 그 후에 요시아왕인데, 스바나는 요시아왕 때 활동했던 왕족이다. 김정남이 피살되었는데, 김일성의 손자 아닌가. 그 아들 김한솔이라는 친구가 피살하고 있다. 요시아의 아버지 암몬은 피살당했고, 요시아는 8살 때 왕이 되었다. 악한 왕 므낫세가 50년을 통치했다. 그 아들 암몬도 아주 악한 왕이었다. 이러다가 암살을 당한 것이다. 이런 분위기에서라면 왕족이 되었다는 것이 그렇게 좋은 일이 아니다. 위험한 일이다. 스바나는 광장히 위기 속에 있었던 인물일 수 있다. 그때 하나님이 스바나에게 나타나셨다. 중요한 것은 나라와 민족과 개인을 구원하는,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자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다. 이것을 스바나에게 깨닫게 하셨던 것이다.

(3) 그가 활동했던 시기는 요시아왕 초기 때였다. 이 배경을 알아야 하나님이 '멸절하리라' 했던 말씀의 이유를 알 수 있게 된다. 50-70년 동안 유다 나라가 계속 위상을 잃었다.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 성경이 아예 없어져 버렸다. 제사도 말씀도 다 없어져 버렸다. 요시아왕 때 성전을 수리하다가 발견한 것이다. 여러분이 예수를 대충 믿으면, 50년, 70년 후 여러분의 자녀들은 선교가 뭔지, 십일조가 뭔지, 주일 성수가 뭔지 모르게 될 것이다. 스바나가 활동하던 시기는 이런 때였다. 섬기는 것은 다 위상이었다. 이유가 무엇인가? 강대국 앗수르가 취했던 종교혼합주의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자기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민족은 반역하는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니까 므낫세왕도 어릴 때부터 그 압박에 타협하기 시작했다. 나중에는 주도적으로 위상승배를 하게 되었다. 암몬도 마찬가지다. 할아버지 히스기야는 믿음으로 앗수르 군대를 이겼는데, 그 언약이 전달되지 않았으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타협하다가,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때, 요시아왕 초기에 예언활동을 했던 인물이 스바나다. 스바나는 왕족이었다. 그러면 요시아왕은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위상을 무너뜨리고, 성전을 청소하고, 율법을 회복하고 종교개혁을 할 수 있었겠는가? 거기에 영향을 미친 인물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사람이 스바나였다. 하나님이 스바나라는 인물을 숨겨두시고, 시대를 살리게 하시고, 왕에게 영향을 끼치게 하신 것이다. 지금도 이런 인물이 필요하다. 나라와 지도자들을 살리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도록 하는 램넛들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 믿는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천명, 소명, 사명이다.

(4) 스바나서를 기록한 목적이 무엇인가?

①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것이라는, 그 날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었다. 오늘 우리가 그 음성을 들을 때 미리 붙잡아야 한다. '그렇게 하면 망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주일성수 안 하고, 세상과 타협하면 안 된다, 그러면 망한다, 씨가 마를 것이다' 하고 경고해야 한다. 제주도에 정신요양원이 있다. 거기 있는 분들은 가족과 완전히 단절되어 버렸다. 이런 멸종의 위기가 와 버린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 오래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은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고 계신다. 기도, 전도에, 신앙생활에 성공해야 한다. 그것이 자신과 후대가 천 대까지 복을 받는 길이다. 이것이 언약의 메시지임을 믿으시기 바란다. 영혼이 잘 묶임이 범사가 잘 되게 되어 있다. 따라온다. 그래서 당대에 믿는 사람들은 몇 배로 싸워야 한다. 반대로, 조상 때부터 믿는 사람은 백배로 전도해야 한다. 나의 나 된 것이 나 덕분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게 기도하고 한을 가져야 한다. 주님은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그렇게 하면 멸절을 당한다. 절대 안 된다." 사람들은 한두 번 맞고 깨달아야 하는데, '이 정도 쯤이야' 하면서 맞다가 나중에는 무더져 버린다. 내 친구는 정기적으로 선생님께 뺨을 맞았다. 참 순진한데, 워낙 장난기가 어린 애였다. 선생님이 화가 나 있는데도 자꾸 간죽거리니까 늘 맞았다. 너무 불쌍해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나중에는 별로 아프지도 않다고 하더라. 여러분이 지금 싸대기를 맞고 있는데도 견딜 만 한 것 아닌가? 정말 착하고 성실한 아이들은 한 번 꾸지람당하는 것을 가지고 엄청나게 자존심이 상했다고 생각하고, 이를 악물고 갱신한다. 윗사람이 뭐라고 해도 마이동풍이라, 이래도 흥 저래도 흥이면 발전이 있겠는가? 하나님은 1장에서 징계를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경고를 하시는 것이다.

② 2장에서는,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에 대한 징계와 경고의 내용이 담겨 있다. 우리가 복음의 주역 아닌가. 내가 잘못되면 우리 가족이 다 잘못된다. 가족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스스로 바뀌어야 한다. 내가 누리고 행복해지면, 주변 사람들이 보게 된다. 전도하려고 하지도 마라. 나도 안 되는 판인데 내가 누리면 된다. 그런데 그 사실을 알아야 한다. 내가 복음을 못 누리면 나 때문에 가족들이 재앙과 저주를 만난다. 우리나라 때문에 주변 나라가 재앙과 저주를 당할 수 있다. 우리가 응답받으면 복의 근원이 되는데,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혼란에 빠지면 주변도 응답을 놓치게 된다.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한다.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 옳다 그르다 하지 말고, 내가 먼저 응답받아서 주변을 다 살리는 축복을 받으시기 바란다.

③ 깨닫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다는 것이다. 3장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받을 축복과 응답을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자신을 보면, 우리가 한 게 별로 없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나의 나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다.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는 것이다. 40일 집중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이 계속 더 많이 참여하고 있다. 이것이 전부 하나님의 은혜다. 21일만 일단 지속해보라. 그러면 습관이 바뀐다고 한다. 주일을 한 번 빠지면 썰린다. 두 번 빠지면 더 썰린다. 세 번 빠지면 편안해진다. (웃음) 그래서 주일 두 번 빠진 사람은 목숨을 걸고 심방하고 찾아가야 한다. 바르게 습관을 가져야 한다. 여러분이 이렇게 집중하면서, 칭찬과 명성을 얻는 영적 서밋이 되시기 바란다.

(5) 시대 배경을 보라.

① 히스기야 임금 이후 악한 임금들이 계속 다스리고 있었다. 요시아왕도 처음에는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스바나의 영향을 받고 변화되어 종교개혁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된다.

② 이스라엘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오래된 악한 종교적 각인, 뿌리, 체질이 있었다. 이것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결국 재앙이 올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기다렸는데도 돌아오지 않았다. 오히려 무속, 점술, 위상이 만연했다. 그러니까 '멸절하리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스바나 1:4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퍼서 남아 있는 바알을 그 곳에서 멸절하며, 위상 아닌가? "그 마립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무속이다. 여러 신을 섬기는 무속이다. 스바나 1:5에, "또 지붕에서 하늘의 못 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점치는 것이다. 위상, 무속, 점술이 만연해 있었던 것이다.

③ 잘못된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다. 종교에 빠지고, 신비주의에 빠지고, 언약이 희미한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스바나 1:5는 종교다원주의의 이야기가 나온다.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한다.

④ 사회에는 불법과 부정과 착취가 만연해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홍수로 네페림 시대를 심판하시고 바벨탑을 무너뜨리셨던 것처럼 이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다. 징계와 재앙과 저주가 올 수밖에 없는 시대였던 것이다.

1.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징계는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사람은 처참한 지경에 이를 수밖에 없음을 알아야 한다.

(1)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을 진멸하겠다고 경고하셨다. 스바냐 1:3에,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처에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와 같이 아니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문제 있는 청소년들을 상담해 보면, 공통점으로 하는 말이 죽고 싶다, 행복하고 싶다, 후회한다는 것이었다. 그렇게 살면 재미있을 줄 알지만, 결국 다 없어져 버린다. 그렇게 같이 놀았던 친구들도 다 없다. 복음 안에, 믿음 안에 있을 때의 친구가 진짜 친구다. 그런 타락 속에서 만난 친구는 결국 원수가 된다. 악한 영향만 끼칠 뿐이다. 결국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 아무도 남아있지 않지 않나. 가족도 친구도 건강도 돈도 희망도 다 잃어버린다. 이것이 멸절의 상태다. 매주 주일성수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계속 응답을 주신다. 증거를 주신다.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주신다.

(2) 신앙생활을 하다가 포기한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 대한 징계가 나온다. 스바냐 1:6에 보니까,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한국에서 제일 큰 교회가 <가나안>교회라고 한다. 뒤집어서 ‘안나기’교회라는 것이다. (웃음)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구역예배도 싫고 봉사도 싫고 설거지도 성가대도 싫고 인터넷으로 말씀 듣고 치우는 것이다.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는가? 여호와를 따르지 않고 배반한 자들을 멸절하리라고 하신다. 나와서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심방도 받고 새벽기도도 해야 한다. 생명을 살려 주셨으니 생명 건 헌신을 해야 한다. 이것을 안 하는 것을 주님은 배신이라고 말씀하신다.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불신자들이다.

(3)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 것만 좋아하는 사람들, 금수저와 재벌들에 대한 징계가 나와 있다. 스바냐 1:8에, 여호와와 날, 징계의 날, 심판의 날, 멸망의 날이 온다. 그러나 이 날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명성과 칭찬을 얻는 날이 될 것이다. 자, 보라. “여호와와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고급 공무원, 외교관, 귀족, 왕족을 말한다.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이게 뭐까 해서 생각해 보았는데, 명품 이야기 아닌가. 외국산 명품 걸치고 있다가 멸망하는 것이다. 이방인의 옷, 이방인의 가방, 이방인의 신발, 하나님 떠나면 필요하지 않다. 고무신을 신더라도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란다.

(4)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다. 스바냐 1:12에, “그 때에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 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라.”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어디 있나, 내가 잘못해도 벌 안 내리고 내가 잘 해도 복 안 주시는데.’ 이렇게 말하는 자들을 멸절하시겠다는 것이다. 두고 보라는 말이 좋은 말은 아니지만, 세월 지나보면 너무 다르다. 특별히 무엇을 얻어서가 아니다. 정말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최고의 축복된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란다. 다른 것은 없다. 의미도 없고 행복도 없다.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들으려 하고, 이해되지 않는 것을 질문하는 사람이 얼마나 예뻐 보이는지 모른다. 모두가 그 맛을 보시기 바란다.

(5) 스바냐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징계는 최후의 심판에 대한 복선이다. 왜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하는가? 최후의 심판은 영원한 심판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경고할 수밖에 없다. 지금 제대로 믿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되기 때문이다. 복음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심판에서 건져내라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다.

2. 이 재앙과 저주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방법이 무엇이겠는가? 오직 복음과 언약과 그리스도다.

(1) 그때나 지금이나, 다민족과 세계 여러 나라들이 재앙과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다. 구원의 길은 선교밖에 없다. 스바냐 2:9을 보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쥘레가 나며,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략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 업으로 얻을 것이라.” 이렇게 우상을 섬기면 인도, 내팔, 필리핀, 다 영원히 황폐해질 것이다. 우리가 전도, 선교를 해야 할 이유가 이것이다. 스바냐 2:12에, “구스 사람들아, 너희도 내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아프리카 나라 아닌가. 이대로 놔두면 안 된다. 아프리카에서 들었는데, 한 여자 사명자 집사님이 이야기했다. 자기 형제가 여덟 명이었는데, 에이즈로 일곱 명이 죽었다고 한다. 그 옆 마을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죽었다고 했다. 본인은 복음을 받아서 살았다고 했다. 이 아프리카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우상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멸망하게 된다. 계속 에이즈가 번져가고 있다. 스바냐 2:13에, “여호와와 복쪽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앗수르를 멸하며, 니느웨를 황폐하게 하여 사막 같이 메마르게 하리니.”

(2) 많은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의 울무에 묶여서 살아 가고 있다. 우상, 무속, 점술에 빠져 있는 것이다. 이번에 우리가 보지 않았다. 최태민이라는 사람이 귀신에게 잡힌 결과가 오늘날 여기까지 문제로 들어온 것이다. 그 영력에 쫓겨 버린 것이다. 울무에 묶여서 끌려가고 있지 않나.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은 오직 복음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란다. 진정한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 우리가, 한국 교회가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는데 역할을 제대로 못한 것이다. 우리가 복의 근원이다.

(3) 우리 후대들은 중독, 세상 문화, 타락에 틀어 갇혀서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 아닌가. 게임 중독에 심하게 빠진 자녀의 상태는 마치 괴물과 같다. 게임을 못 하게 하면 집어던지는 것은 물론이요, 부모를 때린다. 그러면 그 가정은 지옥 같은 곳이 된다. 이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길은 말씀운동, 기도운동, 전도운동이다. 이 재앙지대, 사각지대에 말씀 들고 들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란다.

(4) 이 모든 운동을 한 마디로 표현한 고백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는 모든 재앙을 해결한 참 선지자이시기 때문이다. 모든 정치 경제 가정 중독의 문제를 해결할 이름이 길, 진리, 생명 되신 그리스도시다. 모든 죄악의 문제를 해결할 이름이 참 제사장인 예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은혜, 오직 성령으로만 용서할 수 있고 죄를 이길 수 있다. 정사, 권세, 세상 주관자를 어떻게 이기겠는가. 오직 예수님만이 모든 악한 영의 권세를 박살낼, 마귀를 박살낼 참 왕이심을 믿는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붙잡은 우리는 참 제자, 하나님의 자녀, 사명자가 되었다. 모든 문제를 해결받았다. 이 결론이 난 제자들이 되시기 바란다.

결론 : 하나님의 백성이 받은 축복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축복을 받았겠는가?

(1) 재앙과 저주와 사단의 문제를 깨끗이 완전히 영원히 해결받는 축복을 받게 되었다. 스바냐 3:15에, “여호와와 네 형벌을 제거하였고, 네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와 네 가운데 계시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2) 임마누엘의 축복을 받게 된다. 스바냐 3:17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의 가운데 계시니.”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교회에 계시고 우리 가정에 계시고 우리 나라, 민족과 함께 하시는 것이다. 임마누엘이 무엇인가? 바로 구원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구원받는 것이다.

(3)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쁨과 즐거움의 존재가 된다. 스바냐 3:17에,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어린아이가 실수해도, 넘어져도, 엄마가 볼 때는 귀엽지 않은가? 여러분이 실수했다더라도 하나님을 부르고 주님을 찾아가라. 그러면 주님의 기쁨이 될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 했다. 우리 아이들이 대단히 잘 나서 우리가 예뻐하는 것이 아니다. 생명 가진 램뎀트니까 기뻐하는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4) 우리가 가진 오래되고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받는 축복을 약속하셨다. 스바냐 3:19에, “그 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너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 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이스라엘 민족은 1948년에야 나라를 회복했다. 2천년 만에 칭찬과 명성을 얻게 되었다.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것이었다. 하늘나라의 축복을 이 땅에서도 누리시기 바란다. 당연한 것, 절대적인 것이다.

(5) 천하 만민 가운데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고 약속하셨다. 우리 모든 램뎀트들이 이렇게 되기를 바란다. 어디를 가도 대표자가 되고 리더가 되어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현장의 문제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해결해 버리게 되기를 바란다. 이런 일들이 반드시 일어날 것을 믿으시기 바란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는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므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모든 저주와 재앙의 문제를 해결할 언약을 붙잡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구원을 받고 구원을 누리다가, 가정을 변화시키고 지역, 민족, 많은 나라까지 살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